중동 불안과 금리인하 기대 후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

미국시황/ESG 김윤정 _ 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 hyseong@ls-sec.co.kr

유가 상승에도 이어진 기술주 강세, 상승폭은 제한

- 미 증시는 DOW +0.19%, S&P500 +0.19%, NASDAQ +0.10% 상승. 에너지, 기술주 강세, 통신서비스, 필수소비재 약세
- 중동발 지정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한 투자심리 유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2.5% 반도체 랠리 지속
- AI 발 전력수요 확대 기대감에 은(+7.3%), 구리(+3.1%) 강세. 지정학 불안에 연동해 움직였던 달러인덱스가 97.8 선에서 제한적 흐름 보인 점도 강세 요인

유가는 상승했으나 전쟁 재개는 낙관하는 시장

- 이란의 종전 MOU 관련 답변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용납 불가 입장 표명. 쟁점은 농축우라늄 방출 합의 문제. 또한, 이란과의 휴전이 위태로운 상태라 진단,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 시사. 국제유가 상승 WTI $98.3(+3.0%) Brent $104.7(+3.3%)
-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NACHO(Not a Change Hormuz Opens) 신조어 등장. 다만, 울프리서치는 미-이란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
-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 한편, 회담을 위한 트럼프 방중일정에 애플, 테슬라, 보잉 CEO 동참 예정, 당초 참석 엔비디아는 불참

CME FedWatch 올해 12 월까지 금리 동결확률 70% 집계

- 월가의 금리인하 전망 후퇴. 중동발 인플레 우려에 더해 4 월 비농업고용보고서의 예상보다 견조한 지표에 따른 조치. BofA 와 골드만삭스는 첫 금리인하 시점을 기존 2026 년 9 월에서 각각 2027 년 7 월, 2026 년 12 월로 수정
- 4 월 기존주택판매 402 만채(MoM +0.2%) 컨센 소폭 하회. 총 주택재고 전월비 +5.8%, 미분양 주택재고 4.2→4.4 개월, 중간가격 +0.9%. 봄시즌 주택거래 성수기에도 인플레 및 주담대금리 부담에 거래 미미. 재고 또한 타이트한 수준 유지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GLW	코닝	+10.9%	BofA의 최선호주 리스트 'US 1 List' 편입 소식에 주가 강세. 엔비디아(+2.0%)의 $3.2B 투자, 광학 기술 중심의 신규 공장 3곳 공동 설립 발표 모멘텀 지속되며 6거래일 연속 상승
IONQ	아이온큐	+15.5%	스카이워터 주주들의 인수 합병안 최종승인 소식에 주가 급등. $1.8B 규모의 M&A를 통해 반도체 파운드리 및 첨단 패키징 역량 내재화, 양자컴퓨팅 공급망 수직 계열화 기틀 마련. 현재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2026년 2~3분기 내 딜 클로징 예정
MRNA	모더나	-2.7%	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 모멘텀에 상승 출발했으나 실질적 수익성 기여가 낮다는 분석에 반락 마감. 에버코어ISI는 이번 사태가 유의미한 수익 창출 기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분석. WHO는 현재 공중보건 위험 수준을 '낮음'으로 평가 중
CRCL	써클	+15.9%	실적발표. 1분기 혼조된 실적(EPS 컨센 상회, 매출 컨센 하회)에도 주가 강세. ① 블랙록, 아폴로 등 대형 기관들로부터 토큰 프리세일을 통해 $222M를 조달한 점 긍정적으로 평가. ② USDC 1분기 말 유통량 $77B로 28%YoY 증가. 제3자 거래소 의존도 낮추며 자체 플랫폼 마진 확대. ③ AI 기반 결제 서비스 확장. 이미 메타가 콜롬비아, 필리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USDC 결제 지원하기 시작, 폴리마켓과도 인프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음
CEG	콘스텔레이션에너지	-1.3%	실적발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 연간가이던스 중앙값 컨센 하회하며 주가 약세. 지난 1월 인수한 천연가스 발전기업 '칼파인' 실적이 처음 온전히 반영되며 매출 컨센 대폭 상회
MOS	모자이크	-1.8%	실적발표. 1분기 어닝 쇼크 기록하며 주가 약세. 이란 전쟁에 따른 비료가격 상승에도 불구, 유황 등 투입 원가 급증 영향. 이에 매출액은 컨센 상회했으나 스프레드 악화에 EPS는 컨센 하회